

2017회계연도 제6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8년 2월 1일(목요일) 14:00 ~ 16:1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인사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참석자 : 고규진, 고동호, 박주미, 이철로, 이동호, 손재권, 한상욱, 반상진, 장환석, 박진, 김새봄 위원

○ 불참자 : 김재민, 김학용, 박미순, 조춘신 위원

○ 상정안건

-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2018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 사 : 지금부터 제6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권진철)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 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는 구성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고규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본부장: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함.

(최용재)

위원장 : 제안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규진)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17년~21년까지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라서 양도 많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오니, 다
(한상욱) 음부터는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대
학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가 되는 회계인데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캠퍼스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학습, 취업률 증진에 대한 투자보
다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들레길 조성,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지역과 하나되는 대학도시 조성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주
로 대학 캠퍼스 환경을 바꾸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
을 가지고 학생들이 더 나은 수업을 받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더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학
교의 위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중장기목표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본부장: 대학 등록금은 대학회계에서 자체수입금 계정에 해당됩니다. 자체수입금 계정 내 캠퍼스 (최용재) 환경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서별 사업비 지출 추계를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한스타일캠퍼스조성본부 예산을 보시면 257,000천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어 예산 기본 방향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중기발전계획과 연계를 해서 올 가을에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구성원의 합의 등 기본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있게 되면 예산은 재편성이 가능하고 5년동안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 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의 입장은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계정으로서는 시설비로 (한상욱)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대학회계로부터 한스타일캠퍼스조성본부가 250,000천원씩 사용하고 있고, 소통복지본부 예산 1,200,000천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그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예산중에서도 시설비 쪽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시 들어가는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을 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만, 유지보수비용은 대학회계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학생들의 수업이나 교수님들의 연구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돈이 적더라도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기획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회계의 수입 구조는 국가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금 계정 (최용재)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500억원은 국가지원금이며, 나머지 자체수입금 계정으로 등록금 수입액은 920억원 입니다. 캠퍼스 환경 구축은 대부분 국고지원금 계정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소통복지본부 예산은 1,000,000천원이 홍보실 예산이며, 실제 발전지원부 예산은 150,000천원 안팎입니다. 또한 유지보수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복지본부장: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지원재단과 발전지원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손재권) 발전지원부는 일반 부서와 같이 일반 부서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회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 원 : 제가 알기로는 발전지원재단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소통복지부에서 실제로 발전지원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발전지원재단으로부터 얼마나 지원 받는가하는 정도가 따라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발전지원재단 사업에 대한 결과가 학생 및 교수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복지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재권)

위 원: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상진) 재정기획본부장님께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면 추후에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20플러스 발전비전과 발전목표에서 나온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 구축이 중기재정운용계획과 2020플러스의 재정 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설명이 부족하여 논리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고에서 5년간 시설비로 180억에서 322억까지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 시설비를 매년 요청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한옥스타일 시설공사의 경우 대응투자금으로 대학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컨벤션센터는 대응투자금이 없으며, 큰사람교육개발원의 경우는 총 예산 70억에서 7억정도 대응투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시설비의 경우 시설사업을 교육부로 요청을 하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3년 또는 4년에 걸쳐 교부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대학 리모델링 증축 비용 160억정도에서 설계비용만 받으며 내후년에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교부받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신축 등 확정된 시설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상진) 정부재정지원사업 사업단의 운영비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기획본부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면 강의실의 경우에는 스마트강의실 구축으로 이미 (최용재) 사업신청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구축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발전계획 2020은 오래되어 현재 발전비전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내용을 현재 수립 중인 발전계획 2030에 명시하였으며. 봄부터 공청회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계획 2030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 원: 중기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사업별 지출 추계를 보시면 유독 시설비만 연평균증가율 15.5%로 눈에 띕니다. 이 표를 가지고 대학 운영의 철학을 볼 수 있으며, 모양새가 보기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중기 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사업별 지출 추계를 보시면 유독 시설비가 많이
(한상욱) 증가한 반면 다른 항목들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며, 다른 대학들이 전복대를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실험실습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험실습비 문제는 교수회에서 10년 이상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보면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이 내는 등록금의 차이가 약 500천원 정도 발생하고 1년에 약 1,000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과 학생이 실질적으로 받는 실험실습비는 약 70천원 정도 됩니다. 많은 학과에서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따로 돈을 걷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번 지적했는데 개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는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등록금이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될 때는 다른 항목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의 답변으로는 이공계쪽은 실험으로 소요되는 전기세, 물세를 그 비용으로 지출하고, 교수님들의 연구비 대응투자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낸 실험실습비가 모자라서 더 내야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중기운용계획의 실험실습비를 보면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3% 증가하는 결로 세워났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5년정도 지나도 여전히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실험실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고려하여 이공계 학생들의 실험실습비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한가지~~ 설의하겠습니다.

(고규진) 약학대학설립추진단 예산은 종결이 언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기획본부장: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최용재)

총학생회장 중기 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사업별 지출 추계의 시설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박진) 학우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본부장: 시설비는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계정에서 적은 금액이 사용되긴 하나 대부분 국(최용재) 고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시설비 증가는 이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무국장: 시설비 증가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어 시설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 최대한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반상진) 2019년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특수목적사업이 축소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이 확장되어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그런 부분은 예측을 안 하고, 시설 확충비나 경직성 경비 연평균 증가율 3.8%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재정지원사업비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비나 학습에 쓸 수 있는 경비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냈으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박성일) 진행될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사용은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교무처장 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고동호) 자유롭게 정부재정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원: 2018년 2월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반상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위 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상욱) 둘레길 조성, 한국형 캠퍼스 건설, 이웃자 형 학교로고 만드는 등 이런 것들로 우리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합니다. 수천억의 재원과 인력을 들여서 한옥형 캠퍼스 개발한다고 국제적으로 우리 대학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연구결과를 내고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또한 2030 발전계획에서 한국형 캠퍼스 개발을 꼭 재고하고, 우리학교를 국제화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고규진) 결하고,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5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6명 찬성

위원장 : 반대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3명 반대

위원장 :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

(고규진)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고규진)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8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에 대

(박성일) 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규진)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2018회계연도 대학회계 예산안이 전년대비 13억1500만원 감액 되었는데 등

(반상진) 록금 수입 감수를 그 원인으로 추정하셨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을 보면 2017, 2018년도 재학생수가 각각 22,114명으로 나와있는데, 등록금 수입 감소는 어떤 근거로 추정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 당해연도 11월 1일 재학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1학기, 2학

(박성일) 기 등록학생 수가 2천명이 차이났으며, 대학원의 등록학생이 정원의 6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나와있는 학생 수는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원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학교교육여건개선에 있는 시설확충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 2018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69~7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있

(박성일) 습니다.

위 원 :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운동장 우리단의 교체 예산은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까?

(한상욱)

재무과장 : 설계비로 20,000천원 및 교체비로 618,000천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전북대학교가 한스타일 캠퍼스 목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목적사업을 두 개 이상 받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무과장 : 앞으로는 건물 신축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된 건물의 리모델링 형태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니, 다른 분야의 사업들도 신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 원 : 올해 예산을 보면 여전히 학생들의 실험실습비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본부에서는 실험실습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경우 예산의 증액 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민감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월급 형태로 받았던 비용을 논문을 써야 받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연구·학생지도비 220억 중에서 약 180억은 교수 교연비로 지급되지만, 약 23억은 논문게재 인센티브나 연구지원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 내에서 운영의 묘로 교연비 220억은 전액 교수들에게 개인별로 약 2,000만원씩 지급하고, 논문게재 인센티브나 연구지원비 그리고 직원들이 봉급성으로 받던 학생지도비는 따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현재 교육·연구·학생지도비의 지급기준까지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일) 따라서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힘들 것 같으며, 모든 대학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교수공채 심사에서 우리대학은 아직도 연필로 일일이 쓰고 있습니다. 교수 공채 시스템을 개선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수 공채에 관련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무처장 : 교수 공채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호)

위 원 : 신입교수채용 절차에서 총장 면접을 없애고, 학과와 단과대학에서 모든 채용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하고, 화상면담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과 응시자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무처장 : 우리대학에서는 화상면접이 가능하지만 화상면접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총장 면접시의 면접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원 :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상진) 2018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1페이지에 나와있는 코러스 유지보수 174,957천원과 81페이지에 나와있는 코러스 유지보수 320,769천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71페이지에 나와있는 코러스 유지보수 비용은 전액을 신청했으나 174,957천원만 (박성일) 받아온 금액이며, 81페이지에 나와있는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대학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우리 대학은 총 합한 495,726천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오늘 회의 안건은 언제 완성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기획본부장 : 먼저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재) 회계연도 시작 90일전까지 재정위원회로 안건 이송을 해야하므로 기획과에서는 11월 말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설명회 전에 책자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번 경우 (박성일) 에는 오류 수정 때문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어 설명회때 드린 위원님도 있었고 못드린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 학생회 간부들과도 회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 안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 그리고 학생들도 정부로부터 시설비를 따온 것은 알고 있지만, 건물 신축에 집중하는 정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학금 증액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재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일찍 주겠다는 것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앞으로는 사전설명회 때 자료를 모두 드리도록 하겠고, 회의록에도 기록하겠습니다.

(박성일)

교무처장 : 박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사전에 질의 사항 및 답변서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고동호)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하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2018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0페이지에 나와있는 임차료 부분에서 BTL 1,2,3차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학생 생활관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박성일)

위 원 : 2018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0페이지에 나와있는 국제 컨벤션센터에
(한상욱)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들을 가보면 전통식으로 지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도 유지관리가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없는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실용성 및 효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보수비용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옥형 건축물의 신축은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통복지본부장 : 한상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한스타일캠퍼스조성본부에서 현대식으로 지으
(손재권) 려고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용의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기간이 있으니 의견을 제시하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
(고규진) 결하고,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9명 찬성

위원장 : 반대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1명 반대

위원장 :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고규진)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고규진)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일)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규진)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오늘 자산적 경비, 건설비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반상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7페이지를 보시면 '18년 교육부 일반회계 시설확충비 138.8억이 나와 있습니다. 조기집행하는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 네 초기집행 하는 예산으로 '18년도에 교부된 사업비를 2월말 회계연도까지 집행하고
(박성일) 있습니다.

위 원 : 2018 회계연도에서는 산단에서 전입되는 금액 약 13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반상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산단 세입·세출 규모에서 몇 %정도 법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우리대학 내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 작년에 자기주도학습비는 산단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감소되었습니다.
(박성일)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개념으로 25억정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3%씩 인상해서 받습니다. 그 외에는 목적을 지정해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있습니다.

위 원 : 재무과에서는 산단회계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반상진)

재무과장 : 산단회계는 독립법인이므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성일)

산학협력처장 : 산단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수님의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무과와 정해진
(이철로) 규칙은 없습니다. 현재는 간접비에서 대응자금이나 전기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무과와 협의하여 대학회계를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자체 시설확충비를 발전지원재단에서 13억 정도 한옥카페, 심천학당 신축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복지본부장 : 5억은 저경 기부금으로 재경총동창회장이 심천학당 신축을 요청하셨으며, 8억은 새마을
(손재권) 을금고에서 한옥카페를 요청하셨습니다.

위 원 :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치적을 위해 건물을 짓
(한상욱)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전지원재단에서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장학금 등이 학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복지본부장 :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재권) 지정 장학금의 경우에는 지정한 사람의 요청대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 원 : 발전지원재단의 예산은 외부에서 전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받은 기부금이고,
(한상욱) 그 돈의 일부는 최소한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복지본부장 : 발전지원재단 기금 사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재권) 발전기금은 전주교육청에 사용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며, 기획재정부에 성실공익법인을 신청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발전기금은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원 : 불투명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시설 사업보다는 학생이나 교수님들에게
(한상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
니다.

위 원 : 대학에서 자구노력 하라는 취지로 만든 기구가 산학협력단과 발전지원재단입니
(반상진) 다. 예산을 보면 2,400억원 정도 되는 전북대학교에서 자구노력으로 40억정도 밖
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외형상으로 자구노력이 미진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부분도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
다고 생각되며, 산단에서도 대학회계로 지원해주는 전입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면 상당부분 지원해줄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있을 거라
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 큰사람교육개발원 예산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170,000천원 사업에 대한 설
(한상욱) 명바랍니다. 둘레길 만들어 놓고 홍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강제로 돌게 하여 학
점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 강의도 그런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
문이 듭니다.

재무과장 : K-MOOC 사업으로 교육에서 받아온 예산이며, 동영상 온라인 강의 시스템입니다.

(박성일)

위원장 :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건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
(고규진) 결하고,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 안전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9명 찬성

위원장 : 반대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진)

위원들 : 2명 반대

위원장 :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상정된 안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고규진)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고규진)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
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5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한상욱, 장환석, 박미순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한상욱, 장환석, 박진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한상욱, 장환석, 박진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
(고규진)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6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성일 : 2018. 2. 9.(금)

위원장 : 고 규 진 (인)
간 사 : 권 진 철 (인)
기 록 자 : 강 현 창 (인)

의사봉